

수도권 거주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경험과 의미*

Experiences and Meanings of Leisure among the Middle-class Baby Boomers

Residing in Metropolitan Area

김 정 현**

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Junghyun K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우리나라는 근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기존의 노년층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그들은 퇴직 이후 여유 시간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들의 여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8명을 대상으로 여가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이나 의견을 탐색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그 경험이나 의견을 담은 반구조화 질문 중심의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였다. 면접 내용의 분석 결과, FGI 참여자들의 여가 활동의 양상은 평일과 주말 차이가 있었으며, 여가 활동의 주요한 동기는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및 소통이었다. 그들이 여가를 즐기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시간 부족 등이었으며, 그들이 희망하는 여가는 소액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활동, 성취감이나 보람 등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더 들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 또는 소액이라도 유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여가 활동을 원함을 의미한다. 본 고의 후반부에서는 기존의 노년층과 다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관련 요구를 고려한 여가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논했다.

주제어 : 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여가 활동,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경험

* 본 연구는 한경국립대학교 2024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Correspondence to: (우) 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김정현 (e-mail: kimj@hknu.ac.kr)

(Abstract)

In Korea, the baby boomer generation has recently begun to enter the older population,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is higher than that of previous older generations. They are interested in how they will use their leisure time after retirement,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specifically examining their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experienc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leisure activities of eight middle-class baby boomers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ata collection methods was a focus group interview (FGI) survey centered on semi-structured questions that included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The primary findings of the FGI were that patterns of leisure activities differed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and the main motivations for the leisure activities were to maintain health and to promote soci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In addition, factors that hinder them from enjoying the leisure activities include financial burdens, health problems, and lack of time, while the leisure activities they want are activities that can generate a small amount of income or activities that give them a sense of accomplishment or reward.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middle-class baby boomers desir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enjoy leisure activities and stay healthy as they age, and prefer leisure activities that give them a sense of accomplishment or fulfillment, such as social volunteering or paid activities.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discussed the need for leisure support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leisure-related needs of the baby boomer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older generations.

Key words : Baby boomer, Leisur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Leisure experiences among baby boomers

I. 서론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률이 급증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른다(E. Lee & Paik, 2024). 그들의 절반 이상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65세가 되면서 노년기에 갓 접어든 인구가 급증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한 이후 노인의 특성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 스마트폰 보유율 등이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돌봄 서비스로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E. Kang, Kim, Jung, Kim, Lee, Joo et al, 2023). 서울시 거주자 대상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도 65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에 따라 2022년 고학력자 비율이나 인터넷 활용률이 2018년 대비 급증하였다. 아울러 취업상태의 서울시 고령자들의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증가한 데 비해 단순노무직 비율은 감소하였다(J. Kim & Nam, 2022).

젊은 시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Choi & Choy, 2022).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65세에 진입하는 2028년 이후에는 노년층의 특성이 현재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도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전후로 대부분 현업에서 퇴직하게 된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구축한 세대이지만, 그들은 역시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퇴직 이전과 다르게 오랜 기간 엮매였던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B. Kim & Kim, 2021). 그들의, 특히 남성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 인해 오직 일에 매달리면서 살아왔는데, 퇴직 이후 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S. Park, 2021).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전후로 직장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난 것은 그들의 삶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그들의 사회적·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 Kim & Kim, 2021; J. Kim, 2023; H. Lee, Kim, & Sim 2020).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문화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시기는 2020년대이다. 그 시기를 전후로 그들의 여가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제가 다양해졌는데, 연구의 주제와 관점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본다. 그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로 주로 건강증진이나 자기 계발, 사회적 관계나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그 이

전의 세대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었다(Chun, 2021; B. Kim & Kim, 2021; J. Kim, 2023; Kong & Mo, 2023; H. Lee et al., 2020; H. Park, 2020). 두 번째는 여가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로 그 주된 내용은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B. Kim & Kim, 2021; H. Park, 2020). 세 번째는 여가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관련 연구로 시간 부족이나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드러났다(Choi & Choy, 2022; B. Kim & Kim, 2021; E. Lee & Paik, 2024; Y. Lee, Hwang, & Kim, 2024; H. Park, 2020). 네 번째는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련성 연구인데, 여가 참여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된다는 것이었다(Choi & Choy, 2022; H. Lee et al., 2020; S. Park, 2021).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네 가지 이외의 분야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스포츠나 여행에 초점을 맞춘 관광 산업과 같은 여가 소비와 산업의 관계 연구였다(IJsert & Hernandez-Maskivker, 2020; Patterson & Balderas, 2020; Patterson, Sie, Balderas-Cejuo, & Rivera-Hemaez, 2017).

이상의 국내외 연구들이 찾아낸 공통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기존의 노인 세대와 다르게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경제적 여유와 높은 교육 수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 관련 연구

는 주로 스포츠나 여행, 문화 향유 등의 특정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가 형태의 다양성이나 포괄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연구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양적 연구에 치중된 것이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경험하는지를 비롯하여 여가 활동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지 등에 대한 질적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곧 심층적인 자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가의 내면적 의미와 감정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상에서 여가 활동의 의미를 비롯하여 삶과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 활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 전반에 걸친 의미를 찾기 위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연구였다. FGI 참여자는 60-69세 사이의 남녀 8명이었으며, 그들의 성별, 학력, 연금 보유 상태 및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 유형에 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했다. 그들은 모두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자였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들이었다. 수도권 거주자를 FGI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회 문화적 기반 시설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여가 활동 기회나 접근성이 지방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FGI participants

ID	year of birth	gender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pension status			leisure facilities in use*
					national	private	public officials	
p1	1956	female	high school	married	o	o		1, 2, 3, 4, 5, 6, 7
p2	1958	female	university	married	o			1, 2, 3, 4, 5, 6, 7, 8, 9
p3	1960	male	university	married	o			1, 7, 8
p4	1955	male	high school	widow			o	1, 6, 8
p5	1956	male	graduate school	married	o	o		1, 4, 8
p6	1963	female	high school	married		o		7, 9
p7	1963	female	university	married		o		1, 2, 3, 4, 5, 7, 8
p8	1959	male	university	married		o	o	1, 2, 4, 6, 8, 9

*1: park(공원), 2: cultural center(문화센터), 3: swimming pool(수영장), 4: community center(동주민센터), 5: welfare center(복지관), 6: club(동호회), 7: religious facility(종교시설), 8: library(도서관), 9: gym(체육관)

2. 연구 절차

우선 연구 참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였는데, 조사업체인 (주)한국리서치에서 60대 패널을 대상으로 할당 표집을 적용해서 선정했다. 선정은 성별, 생년월, 거주지(실거주지 기준 시도, 시군구 정보), 여가 활동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수준, 연금 수령, 자가 보유 여부, 그리고 학력 관련 질문을 담은 질문지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비대면으로 배포한 질문지의 응답에서 평소에 공공장소 및 사회적 장소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 아닌 다른 공적연금 혹은 개인연금 수령자이거나 자가를 보유한 자 중에서 연령대(60-64세, 65-69세)와 성별, 거주지역(서울, 경기) 비율을 안배하여 총 8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FGI가 실시되기 전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하였으며, 연구 관련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했다(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번호 2024-0912-003). 본 FGI는 2024년 9월 10일 15시부터 2시간에 걸쳐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자는 면접자로서 조사의 목적과 배경을 참여자들에게 명료하게 설명하여 신뢰감을 얻고자 했으며, 시종일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아울러 면접자는 참여자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적절한 탐사 질문을 이어가는 등 참여자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유도하였다. 면접 전개 과정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으로 활용하여 주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구했

데, 질문 내용은 여가 활동 현황과 그에 따른 즐거움, 여가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여가 활동의 욕구와 필요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여가 활동의 차이 등이었다.

FGI 진행을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FGI 전체 과정을 디지털 레코더에 녹음했으며, 녹음 내용은 음성관리시스템 ‘클로바노트’를 활용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작성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등장하는 주제나 단어, 또는 개념을 식별하여 초기 코드(open coding)를 생성하였다. 초기 코드 생성 이후 유사한 코드를 묶어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FGI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 주요 쟁점 및 패턴을 분석하였다(J. Kim, Chon, & Chang, 2020). 분석된 결과를 일부 또는 전체 참여자와 공유하면서 연구 결과에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지만, 참여자들의 발언 자체가 주제 관련 토론이 아니라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경험이나 의견이었기에 연구자는 이를 직접 인용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했다.

III. 결과

FGI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여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여가 현황과 결핍, 욕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가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FGI 자료 분석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추출한 핵심적인 분석단위를 범주화한 이후 몇 가지 주요

영역까지 도출하는 것이었다. 자료의 규모가 약했다. 도출된 주요 영역은 여가 활동 경험, 방대하지 않고 분석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약 여가의 의미, 희망하는 여가의 형태, 그리고 점을 안고 있지만, 그 결과는 <Table 2>에 요 향후 여가생활이라는 네 가지였다.

<Table 2> Examples of a unit of analysis, category, and main area derived from FGI

Main area	Category	Unit of analysis
Experiences of leisure activities (여가 활동 경험)	Leisure routine (여가 현황)	Weekday leisure activities (평일 여가 활동), Weekend leisure activities (휴일 여가 활동)
	Leisure motivation (여가 참여 동기)	Little financial burden (저렴한 비용), Physical and/or mental health (건강), Soci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사회적 관계 및 소통)
	Barriers to leisure activities (걸림돌)	Weakened body functions (체력 저하나 건강 문제), Lack of time (시간 부족), Lack of money (돈 부족), Rejected from the inner circle (내부 집단에 합류 제한)
Meanings of leisure (여가의 의미)	Perception of leisure (여가에 대한 인식)	Just killing time (단순한 시간 보내기), Difficult to do with other activities (다른 활동과 병행 어려움)
	Conditions for ideal leisure (이상적인 여가를 위한 조건)	Financial wealth (경제적 여유), Healthy condition (건강),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Having autonomy (자율성), Getting a reward of fulfillment (보람)
Preferred type of leisure (희망하는 여가의 형태)	Leisure activities connected to the pastime (소일거리와 연결되는 여가 활동)	Leisure activities that guarantee a small income (소액의 수익 활동), Reverse discrimination in leisure policies against the middle-class (중산층 대상 역차별적 여가 정책)
	Leisure as a universal welfare benefits (보편적 복지 혜택 차원의 여가)	Dissatisfaction with welfare policy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 Request a voucher to use for leisure activities (여가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제안)
	Leisure activities based on program participation (프로그램 참가 차원의 여가)	Need for leisure program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다양한 특성의 프로그램 필요성), Leisure activities enjoyed in a comfortable and spacious space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즐기는 여가)
	Leisure activities as a volunteer work (봉사활동 차원의 여가)	Leisure activities provid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여가), Leisure activities providing a sense of reward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가)
Leisure in the future (향후 여가생활)	Expectations and concerns (기대와 우려)	Limited leisure choices due to deteriorating health (건강 악화에 따른 선택지 감소),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as the final leisure destination (최종 여가 종착지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

1. 여가 활동 경험

여가 활동 경험의 영역은 여가 현황, 여가 참여를 유인하는 동기, 그리고 여가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가 현황

여가 현황의 범주는 ‘평일’과 ‘휴일’ 여가 활동이라는 분석단위로 구분했다. FGI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은 가벼운 운동(산책, 수영, 요가, 등산 등)과 종교활동, TV 시청, 독서, 여행 등이었는데, 평일과 휴일의 활동에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평일의 여가 활동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공원이나 개천, 뒷산 등의 야외공간,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주민센터, 그리고 교회에서 즐긴다고 했다. 참여자들이 평일의 활동이라고 밝혔던 진술문 예는 다음과 같다.

‘시간 나는 대로 운동 삼아 개천 한 바퀴 돌고 공원 돌고 그런 거지 특별하게는. 지금도 많이 걷는 건 힘들고 힘든 운동은 못 하니까 가벼운 운동으로 많이 소요하고 있죠.’ (p8)

‘아침 5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운동을 가요. 수영장 40분 정도 하고...(중략)...내 할 일 있으면 나와서 하고 저녁때 남편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인왕산 산책로 그 쪽으로 산책하고.’ (p6)

‘주 3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요가를

가요. 아침에 8시 반쯤에 가서 한 시간 정도 하고, 가능한 시간대는 제가 봉사하는 거 외에는 주로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아니면 가까운 대모산이라든가 아니면 청계산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p2)

FGI 참석자가 휴일에 즐기는 여가는 여행이나 농사 등으로 평일보다 이동 거리가 더 멀고, 활동 반경이 더 넓은 편이었다. 또 휴일의 여가 활동에서 함께 하는 사람은 평일과 다른 편이었다. 예를 들면, 주로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기는 평일의 여가 활동과 달리 휴일에는 친구, 과거 직장 동료 등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휴일의 여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토요일 일요일은 친구하고, 수원에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힐링하고 농사도 좀 거들고.’ (p4)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또 업계 회사를 같이 다녔던 친구.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는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런 것들이 한 모임당 1년에 한 서너 번. 모임이 몇 개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p5)

2) 여가 참여 동기

여가 참여 동기의 범주는 ‘저렴한 비용’,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소통’ 등의 분석단위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중 ‘저렴한 비용’ 동기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자들 대

부분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예를 들면, 영화관람료나 KTX 승차, 공원이나 문화재 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역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이용을 자주 하면서 여가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위해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는데, 산책이나 운동 등산 같은 활동은 신체 건강의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소통의 동기도 참여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즉 동년배를 비롯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편안함이나 친근감도 느낄 수 있는데, 참여자의 일부는 이와 같은 소통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FGI 참여자의 여가 활동 참여 동기에 관한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도 있죠. 기분 전환도 되니까.’ (p8)

‘온라인 카페 이용하니까 너무 편안해요. 그분들은 같은 목적이예요. 무슨 생활을 했든 나이가 다 60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고 제일 편한데가 온라인 카페라고 생각해요.’ (p1)

‘아침에 두 시간 반 정도 동네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중략) 거기에서 오전에는 저희 또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도 친근해요. 어떨 때는 같이 점심

을 먹기도 하고.’ (p5)

‘영화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어요. 50% DC되니, 새로 나올 때마다 영화를.’ (p2)

‘여행할 때 KTX도 다 할인되고 고궁도 할인되고.’ (p5)

3) 걸림돌

베이비붐 세대가 여가를 즐기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FGI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여가 활동의 방해 요소, 즉 걸림돌이라는 범주는 체력 저하, 건강 문제, 시간 부족, 내부 집단에 합류 제한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요약된다. 이는 퇴직 등으로 생의 후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해야 하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시에는 돈벌이 등에 나서다 보면 시간도 부족해지게 된다. FGI 참여자 대부분은 연금소득 수혜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 때문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여가를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가 활동을 위해 특정한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 회원들 간 결속력이 강해 새로운 회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호소하는 사례 중 일부는 손자녀 돌봄으로 여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걸림돌을 설명하는 참여자의 진술문 예는 다음과 같다.

‘노년에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

런데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따라야죠. 건강이 안 따르면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고 백해무익하고...(중략)...운동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다리를 좀 다쳤는데,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들어. 러닝머신도 할 수 없고.’ (p4)

‘60대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물론 건강이고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나가서 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친구, 돈, 시간, 건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p6)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분이 커피를 한잔 사면 나도 사야 하고, 그런 게 다 돈하고 관계된다는 거죠...(중략)...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앉아서 차 마시고 점심도 거기에서 해결하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는 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즐길 수 있다는 거야.’ (p2)

‘회사 다니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면 좋은데, 말씀처럼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중략)...결국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내 여가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죠.’ (p3)

‘직장에서는 탁구도 했는데, 회원 결성이 너무나 완고하게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동네 주민이어도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태더라고요.’ (p2)

‘딸이 출산하기 전에는 항상 오후 5시부터 반부터 7시까지 검도를 했어요. 그런데

손녀 돌보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 그걸 포기하게 돼요. 몰라라 할 수도 없고.’ (p6)

2. 여가의 의미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여가의 의미 영역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 여가의 조건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여가에 대한 인식

여가에 대한 인식이라는 범주의 분석단위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와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움’의 두 가지였다. 즉 FGI 참여자들은 여가를 단순히 또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소일거리 삼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득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돈을 벌거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소일하는 대체 행위에 불과한 셈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진정한 여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택해 여행하거나 하고 싶은 운동이나 활동을 재정적 부담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같은 인식은 근래 우리나라 상류층이 즐기는 여가생활에 버금가는 것인데(Min, 2016), 이는 본 연구 참여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가라는 건. (중략) 특별하게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지 뭐.’ (p8)

‘노인들은 일하면서 즐기면 그게 여가지. 특별하게 뭘 한다는 여가? 그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특별하게 내가 여가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건 좀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말고.’ (p8)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여가 활동이라는 건 진짜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 가고 그렇게 되지. 물론 그걸 여가라고 보면 여가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보면 시간을 때우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p2)

‘잡(job)이 있으면 산책 안 해요. 직장에 가서 퇴근한 후에 건강을 위해 운동 가지. 잡이 없으니 낮에 그렇게 슬슬 공원 돌고 이러는 거예요.’ (p5)

‘여가생활은 중상층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략) 산에 가고 헬스 가는 건 여가가 아니에요. (중략)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며칠 동안 4박5일이나 5박6일인가 돌고. 미지의 나라도 다녀보고 경험도 하고 이게 여가지.’ (p4)

2) 이상적 여가 조건

이상적인 여가 조건이라는 범주의 분석단위는 ‘경제적 여유’, ‘건강’, ‘충분한 시간’, ‘자율성’, ‘보람’ 등이었다. 여러 분석단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나 시간보다 돈이었다. 대다수 FGI 참여자는 퇴직으로 시간적 여

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기에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여가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더라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삭막하고 슬픈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돈의 중요성을 토로했다. 또 그들의 일부는 아직 건강 상실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심지어 건강하지 않더라도 돈만 있으면 여가를 누릴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였다. 한편 재정적 여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이나 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지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상적인 삶 또는 여가라는 관점도 드러났다. 그와 같은 일이나 활동은 보람이나 성취감까지 연결되므로 의미가 있는 여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3. 희망하는 여가의 형태

FGI 참여자가 희망하는 여가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소일거리와 연결되는 여가 활동, 보편적 복지 혜택 차원의 여가, 프로그램 참가 차원의 여가, 그리고 봉사활동 차원의 여가였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일거리와 연결되는 여가 활동

소일거리와 연결되는 여가 활동 범주의 분석단위는 ‘소액의 수익 활동’과 ‘중산층 대상 역차별적 여가 정책’이었다. FGI 참여자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여가의 한 형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바라는 여가는 고액이 아니더라도 교통비나 식비 정도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되면서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FGI 참여자들은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의 소일거리 활동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자신들과 같은 다수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소일거리 사업이 부채함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관점을 살필 수 있는 진술문은 아래와 같다.

‘여가생활이 약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연계해서 되면.’ (p3)

‘10명 중 8, 9명은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뭘 찾으려 다녀요. 중고등학교에서 도우미하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만큼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가는 일 부러 여행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즐기는 거. 지금은 교통비하고 임금을 조금만 주면 그걸 즐기면서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런 여건의 일이 없어서 어디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p5)

‘어느 특정한 분만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정말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소수만을 위한 지금 있는 복지정책만 가지고는 저희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p7)

2) 보편적 복지 혜택 차원의 여가

보편적 복지 혜택 차원의 여가라는 범주의 분석단위는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과 ‘여가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제안’이었다. 기존의 노년층보다 자산이 더 많고 소득수준이 더 높은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복지정책의 틀이 중산층에게는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소액으로 쪼개어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다. 그들은 보편적인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여가 관련 바우처 제공을 들었는데, 바우처 사용 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추가 비용도 기꺼이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할 정도의 입장이었다. 그와 같은 입장을 살필 수 있는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은 시작을 잘못했어요. 지금 정책이 계획을 짜지 않고 만들어서 수시로 뺄뺄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해주고, 많으면 없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3, 4백 버는 이런 층들이 혜택 하나도 못보고 돈은 다 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p8)

‘경로당에 가면 화투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시는 분만 가요. 경로당 예산이 동마다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그 예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멀티센터에 지원이 나가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p1)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게 바우처를 한다가나 일정 금액에 얼마를 줘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우처 안에 문화 바우처라든가 운동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p7)

3) 프로그램 참가 차원의 여가

프로그램 참가 차원의 여가라는 범주에 대한 분석단위는 ‘다양한 특성의 프로그램 필요성’과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즐기는 여가’였다. FGI 참여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여성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베이비붐 세대의 참가가 적절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여가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생활을 누림과 동시에 일자리 제공이나 건강 욕구 충족도 가능한 대규모 복합시설에서 즐기는 것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관점에서는 현재 70대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 공간의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살필 수 있는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디에 하나 건물을 지었다 하면 진짜 우리 같은 노년 계층에 맞는 그런 건 없고. 구민회관이나 여성센터에 가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운영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도 이롭지 않더라고요.’ (p1)

‘여가 프로그램에 질적으로는 높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시간이 남으니깐 가끔 참여해 보는 거고, 주민센터고 경로당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만 다니는데.’ (p7)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공간에 노인들이 체력 차원에서 두세 시간 교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가도 노인정을 많이 지을 게 아니라 다 목적회관을 크게 지으면 거기 가서 영화도 보고, 친구하고 같이 컴퓨터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식사도 돈 내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p4)

4) 봉사활동 차원의 여가

봉사활동 차원의 여가라는 범주는 참여 자체를 통해 심리적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가라는 두 가지 분석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때 성취와 보람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 그들에게는 여가의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후학을 비롯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은 여가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자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와 같은 관점을 보여주는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일이든 봉사든 첫째는 소속감이라는 걸 떠나서 자기만의 보람을 느껴야 만족이 되지 않을까. 보람이 없다면 그게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일

을 했던 봉사가 됐든 작은 세 시간짜리 일을 했던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보람이 있어야지'. (p1)

‘뭘 가르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모두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중략)...어디 유치원 아이들한테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국립유치원이 있다면 어머니 할머니 몇이 가서 무슨 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주고서 기쁨도 느끼고, 배워서 기쁨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여가죠. 주는 것도 여가고.’ (p5)

4. 향후 여가생활

향후 여가생활의 영역은 ‘기대와 우려’라는 한 가지 범주로 요약되었다. 또 그 범주에 속하는 분석단위는 ‘건강 악화에 따른 선택지 감소’와 ‘최종 여가 종착지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었다. 즉 FGI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더 나이가 들어 심신의 건강이나 기능 상태가 약해지는 70대 중반 이후의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60~70대 초반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미래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70대 후반 이후 지금보다 심신이 약해지면 여가 활동의 폭도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불안과 함께 갈 곳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걱정도 토로했다. 그들은 그 경우 노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최종적인 여가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토의 주제가 미래의 여가생활이다 보니 참 여자의 이야기는 건강이 매우 약해진 상황으로까지 변졌는데, 그들은 건강이 약해지면 여가는 차치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걱정했다. 게다가 그들은 젊은 세대의 노부모 부양 의식이 약해졌기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때가 오면 돈보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여가로 여겨야 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 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대로지만, 건강하다가 70 넘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미래가 불안하죠.’ (p8)

‘그래서 내 경우에는 70대 중반도 갈 마음 없을 것 같고, 물론 건강해야겠지만. 70대 후반이 넘어서 갈 데가 없을 때는 데가 노인복지관이네요.’ (p5)

‘중요한 건 61에 퇴직하면 기껏 자기가 움직여봤자 70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움직이기가 거의 어려워요. 불과 10년 정도 움직이는 건데 그때 안 움직이면 평생 그대로 가는 거야. 다 그 정도 연배라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물론 70 넘은 사람 모아놓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p8)

‘해주는 주체가 바뀌겠죠.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가 75, 80세가 됐을 때는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어져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듯이 우리를 돕는

주체가 자식에서 국가나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겠죠.’ (p7)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기초 생활비로만 살아가셨잖아요. 진짜 꼭 필요한.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초생활비에 여유 생활비까지 있어야 생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p7)

‘전철에서 80대 초반쯤 되시는 분 같은데, 부채를 들고 창밖을 보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쭙봤어요. 제 옆에 앉으셨길래 어디까지 가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를 한 대요.’ (p2)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중략)...일해서 돈 몇 푼 벌어들였다는 의미 없는 건데, 돈벌이를 떠나서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그게 노인들 여가 되고 그런 거지. 따로 수영장 가서 수영한다는 건 사실은 습관이 안 되면 어렵고.’ (p8)

IV. 논의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노인층보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상태에서 퇴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된 세대이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도 강한 편이다(Chun, 2021; E. Lee & Paik, 2024; H. Park, 2020; J. Kim & Nam, 2022; Yang, Jeong, & Yoon, 2017). 이에

본 연구는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여가 및 그와 관련된 욕구를 탐색하였으며, 그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가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8명을 대상으로 FGI를 적용하여 여가 활동 경험을 비롯하여 여가의 의미, 희망하는 여가의 형태, 미래의 여가 관련 기대와 우려 등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들이 진술했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다수 FGI 참여자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 관리는 물론 동년배와의 유대 강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퇴직한 이후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여가 활동은 자기가 거주하는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통비나 식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가 뭐라도 하고 싶지만 적절한 활동이나 소일거리가 부족하여 찾지 못하는 현실, 그러한 이유로 여가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부동산 등 순자산에 기준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K. Kim & Jang,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여가는 보편 복지 차원의 활

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당수의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이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이 없는 기간(*income crevasse*)을 겪어야 하는데(J. Kang, Park, & Cho, 2022). 이는 이 시점이 지나야 여가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일부는 퇴직 이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유지, 건강 유지, 경력 활용, 사회 기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진술한 여가도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관련이 깊었으며, 퇴직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관점과 일치했다(Joo, Kim, & Jin, 2016; M. Kim & Choi, 2024; Yang et al, 201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년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건강 문제로 인해 70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고령자 여가 관련 정책도 연령층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은 기존의 노년층과 차별이 되는 쾌적하고 개방적인 대규모 여가 공간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 역시 여가 정책의 다양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노년층이 주로 찾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여가 욕구나 기대를 반영하지도 충족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문화 시설은 심리적 접근성과 개방성, 가변성 등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

다(K. Park & Park, 2024).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지원 제도가 기존 노년층 상대의 제도와 차별화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여가 형태는 개인의 재정적 여유 상태와 무관하게 보편적 기회 제공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및 유급 자원봉사(*civic work*) 형태의 여가생활이어야 하는데, 이미 실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도 그 예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노인들만을 위한 제한된 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여가와 관련이 적었던 시설도 여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복합쇼핑몰이나 문화센터 등도 베이비붐 세대가 소일거리를 즐기거나 원하는 취미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여가 활동의 장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한편 2005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바우처 시범사업이 근래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발전했는데(Lim & Yoon, 2020), 이것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혀주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 충족을 위해 민간 학원 등의 시설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FGI를 통해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 전반에 걸친 의미 등을 살핀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와 다른 그들의 여가 요구 등을 논했다. 그러나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우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이 발달한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최소 중산층에 해당하는 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 인원만이 참여했더라도 2시간 정도에 불과한 FGI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FGI 과정에 대한 녹취록의 작성과 그 내용 분석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연구자의 결과 해석이 참여자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계층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나 심층면접 연구 시도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소외되었던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과 그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여 이들의 요구를 고려한 여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Choi, S., & Choy, J. (2022). Effect of cultural, social, economic capital and satisfaction on cultural enjoyment of baby boom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 (6), 2957-2967.
- Chun, S.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time sport participation and health care costs among Korean baby boomers and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5(3), 63-76.
- IIspeert, R., & Hemandez-Maskiver, G. (2020). Active sport tourists: Millennials vs baby boomers. *Journal of Tourism, Heritage & Services Marketing*, 6 (2), 12-20.
- Joo, S., Kim, S., & Jin, J. (2016). Valuation of civic engagement project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 (2), 73-92.
- Kang, E., Kim, H., Jung, C., Kim, S., Lee, S., Joo, B., et al. (2023). *The aging survey of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52000-000672-12). Sejong, Korea: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ang, J., Park, J., & Cho, J. (2022). Inclusive aging in Korea: Eradicating senior pov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 (4) [doi: 10.3390/ijerph19042121].
- Kim, B., & Kim, M. (2021). Determinants of baby boomers'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9 (3), 71-91.
- Kim, J. (2023). Happiness and preferred tou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travel attitudes of baby boomer.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 23 (2), 211-228.

- Kim, J., Chon, Y., & Chang, H. (2020). A study on the food security for low-income older adults: A case study on meals on wheels project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 (4), 617-638.
- Kim, J., & Nam, H. (2022). Life for community-dwelling older Seoulit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31 (3), 221-231.
- Kim, K., & Jang, D. (2016). *The 2015 Seoul Welfare Survey: An in-depth analysis Report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ISBN 979-11-5700-195-8). Seoul, Korea: The Seoul Institute.
- Kim, M., & Choi, Y. (2024). A study on latent profile typing and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baby boomer generation'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Focusing on Busa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90, 37-66.
- Kong, J., & Mo, S. (2023). The effect of baby boom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on successful aging: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commi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 (7), 465-477.
- Lee, E., & Paik, J. (2024). A meta-analysis study on older adults and baby boomer studie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42 (2), 327-340.
- Lee, H., Kim, K., & Sim, J. (2020). The effec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s leisure activities on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9 (4), 165-175.
- Lee, Y., Hwang, H., & Kim, B. (2024). The moderating effect of health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among baby boomer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8 (1), 31-42.
- Lim, J., & Yoon, Y. (2020).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ultural voucher policy on cultural expenditur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8 (1), 187-214.
- Park, H. (2020). The effect of baby boomer generation on aging preparation and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DanKai generation.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 20 (1), 91-111.
- Park, K., & Park, J. (2023).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the life experiences of retired baby-boom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32 (2), 137-169.
- Park, S. (2021).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well-being between Korean liberation generation and baby-boom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 (2), 755-765.

- Patterson, I., & Balderas, A. (2020). Continuing and emerging trends of senior tourism: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Ageing, 13*, 385-399.
- Patterson, I., Sie, L., Balderas-Cejudo, A., & Rivera-Hernandez, O. (2017). Changing trends in the baby boomer travel market: Importance of memorable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6* (4), 347-360.
- Yang, J., Jeong, Y., & Yoon, S. (2017).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by baby-boomer and elderly units: Focused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15* (3), 1-20.

Received: October 28, 2024

Revised (first form): November 18, 2024

Revised (final form): December 10, 2024

Accepted: December 13, 2024